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분석

김수진¹, 윤소연¹, 이보람¹, 홍진하¹, 황도연¹, 유슬기¹, 신나연^{2*}
¹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²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수간호사

Concept Analysis of Clinical Nurse's Self-Efficacy

Kim-Su Jin¹, Yoon So Yeon¹, Lee Bo Ram¹, Hong Jin Ha¹, Hwang Do Hyeon¹,
Yoo Seul Gee¹, Shin-Na Yeon^{2*}

¹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CHA University
²Unit manager,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간호학에서의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Walker 와 Avant의 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 분석을 하였다. 간호사로 하여금 스스로 임상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역경, 그로부터 수반되는 부정적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간호사 자신에게 간호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통제할 적절한 판단력이 있다고 믿게 하여 업무를 속행 할 수 있게 하는 것, 간호 업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도전적인 목표 의식을 갖게 하고 미래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간호사 개인적 측면에서부터 환자나 병원 조직까지 다방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의 다섯 가지 속성으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기 효능감 개념이 간호사 개인의 발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성과와 조직 몰입을 이끌어 내 병원이라는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고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주제어 : 분석, 자기 효능감, 개념, 간호사, 병원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clarify the concept of clinical nurse's self-efficacy.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Walker & Avant's concept analysis framework, There were five aspects of the concept of Clinical Nurse's Self-Efficacy: To have faith and expectation that nurses can overcome stress and adversity in the clinical environment, To have a clear direction by believing that nurses themselves have the ability to perform nursing tasks, Allowing nurses to continue their work by believing that they have appropriate judgment to control various situations in clinical practice, Having a challenging sense of goal and motivating for the future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nursing work, and influencing various aspects from individual nurses to patients and hospital organizations. This conceptual analysis of clinical nurses' self-efficacy can recognize the need to prepare an educational system to improve nurses' self-efficacy and conduct related research.

Key Words : Analysis, Self efficacy, Concept, Nurses, Hospitals

*Corresponding Author : Shin-Na Yeon(nabong78@chamc.co.kr)

Received August 8, 2023

Revised September 5, 2023

Accepted September 20, 2023

Published September 28,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 또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기획하고, 이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1]. 간호사는 평균적으로 병원 전문 인력의 4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간호 조직의 운영 및 관리는 병원 조직관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 간호사는 병원의 핵심 전문 인력으로서 사회적 요구와 병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간호 전문직 신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발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간호 현장과 예측하기 어려운 간호대상자를 둘러싼 환경에서 목표로 하는 행동을 이행하는 병원 간호사는 개인의 능력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병원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자기 효능감에 따라 임상 현장의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다르다는[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하는[4,5],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이 환자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6] 등이 있다. 이렇듯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직무 스트레스 대처, 직무만족과 환자 안전 관리 등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적용되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 과정을 통해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간호학에서의 병원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속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모델 사례를 진술하는 것이며,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파악하며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 개념분석 방법은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고, 개념의 정의, 목적, 관계, 근거, 과정과 준거가 선행 문헌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2.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서 2023년까지 '병원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Clinical Nurse's Self-Efficacy'라는 주제로 국의 검색엔진으로는 Pubmed, 국내 검색엔진으로 Riss, DBpia, google scholar에서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문헌들을 분석했으며 건강 관련 문헌으로만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Walker와 Avant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개념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1. 개념을 설정한다.
2. 개념분석의 목적을 선정한다.
3. 개념의 모든 사용을 확인한다.
4. 개념의 결정적 속성(defining attributes)을 확인한다.
5. 개념의 모델 사례(model case)를 제시한다.
6. 개념의 부가 사례(경계 사례, 반대 사례, 관련 사례)를 제시한다.
7. 개념의 선행요인 요인(antecedents)과 결과(consequences)를 확인한다.
8. 개념의 경험적 준거(empirical referents)를 확인한다.

2.3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S시에 위치한 3개 종합병원의 병동 및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10명의 간호사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측면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었고, 본 연구자가 간호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개념선정

명확한 정의나 분석 없이 사용되고 있는 병원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개념의 정의

3.2.1. 병원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사전적 정의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 방법에 따르면, 본 단계에서는 개념을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자료 분석이 요구되며, 백과사전이나 사전, 검증된 논문들이 해당한다. 병원 간호사(Clinical Nurse)란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로서 숙련된 능력을 가지고 간호 실무에서 전문기술을 나타내며, 임상경험과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기술의 전진하는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자기효능감(Self-Efficacy)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뜻한다.

따라서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Clinical Nurse's Self-Efficacy)란 '등록 간호사로서 잘 숙련된 능력을 가지고 간호 실무에서 전문기술을 나타내며, 임상 경험과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기술의 전진하는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임상 상황에서의 자신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3.2.2. 건강관련 문헌에서의 자기효능감 정의

문헌에서는 병원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이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 우울, 감정노동, 삶의 만족, 전문직 자아개념 등 간호사의 개인적 심리와 사고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자기 효능감이 리더십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 수행 능력, 환자 안전 관리 능력, 투약 안전 역량, 중증도 분류 역량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간호사 개인의 실무적인 능력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다. 그리고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등 병원이라는 조직 차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자기 효능감은 간호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병원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간호학적인 특성만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간호학 분야에서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개념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었고, 반두라의 자기효능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자기효능감 개념을 활용해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간호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병원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간호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이고[7], 스트레스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이기도 하다[3]. 또 간호사 개인 스스로가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도 하였다[8].

따라서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개념은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 우울, 감정노동, 삶의 만족, 전문직 자아개념 등이 간호사 개인의 심리와 사고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그것들이 임상 상황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대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3], 임상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9], 간호사의 소진과 감정노동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7], 코로나 팬데믹시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9],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10] 등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직무 스트레스나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 감정이나 사고를 다룰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3.3 개념의 결정적 속성 확인

결정적 속성을 확인하는 단계는 개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속성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단계이다. 개념을 활용되고 있는 문헌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념의 속성을 밝히는 것으로 병원 간호사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병원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헌 분석을 한 결과, 병원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은 간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며, 직무에 대한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조직 몰입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문헌을 통해 도출한 병원 간호사의 개념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로 하여금 스스로 임상 내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역경, 그로부터 수반되는 부정적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한다.
2. 간호사 자신에게 간호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3. 임상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통제할 적합한 판단력이 있다고 믿게 하여 업무를 속행 할 수 있게 한다.
4. 간호 업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도전적인 목표 의식을 갖게 하고 미래를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5. 간호사 개인에서 환자나 병원 조직까지 다방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3.4 개념의 모델 사례

모델사례란 개념의 중요한 모든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예이다. 모델사례에서 연구자는 개념의 속성을 정의하고, 모델사례 개발을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모델 사례는 알아내고자 하는 개념의 전형적인,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사례이다.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의 필수 양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A 간호사는 2019년 C 종합병원에 입사하였다. “입사 초반에는 처음 받아보는 압박감과 제가 하는 일이 환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일이 미숙해 위축도 많이 되었고, 저의 부정적인 감정이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영향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힘들 때 저의 선배가 선물해 준 책을 읽게 되었어요. 책의 내용에는 ‘처음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위축되지 마라. 노력하면 된다. 나 자신을 믿어라.’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왜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하고 바닥으로 내치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 모든 일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고, 한번 한 실수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매일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써서 내가 잘한 점 한 가지 이상을 쓰며 셀프 칭찬을 하고, 나 자신을 믿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나 자신을 사랑하

는 방법을 알게되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 덕분인지 요즘 다른 선생님들이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하고, 일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또 환자분들은 저를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된다고, 자기도 행복해진다고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엔 불안감도 높았는데 지금은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앞으로 더 발전해서 멋진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도 생겼어요.

위 사례는 과거에는 간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부재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을 믿고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서부터는 부정적 감정을 다룰 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정서적인 안정이 곧 직무 능력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주변 동료들과 환자들이 인식할 정도로 변화했고 본인도 만족하지만 그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병원 간호사의 자아 효능감이 임상 내의 스트레스와 역경, 그로부터 수반되는 부정적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방향성과 행동력을 제시해 그것이 곧 직무 능력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환자나 병원 조직까지 다방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목표 의식을 갖게 하는 과정을 포함한 모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5 개념의 부가 사례(경계사례, 반대사례, 관련사례)

1) 경계 사례(borderline case)

경계 사례는 모델 사례에서 제시된 모든 개념의 속성을 완전히 포함하지는 않으나, 개념의 중요한 속성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비슷하지만,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이다. 이 예를 통해서 왜 모델 사례가 될 수 없는가를 보여주고 무엇을 개념으로 간주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어 실제 개념의 명확하고 중요한 속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2020년 3월에 C 종합병원에 입사한 B씨는 임상 경력 만 3년이 된 4년차 간호사이다.

“입사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후배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저를 보고 공부했으

면 해서 부족하지만 업무 정리 했던 제 수첩을 후배에게 보라고 빌려줬어요. 저도 작년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고 힘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는 정말 잘 해놨어요. 저는 이제 수첩 없이도 일 해요. 그렇지만 다른 윗년차 선생님들처럼 실수 없이 일을 좀 속도 있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위 사례에서는 늘어나는 후배 간호사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간호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고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또한 임상 내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역경, 그로부터 수반되는 부정적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간호업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도전적인 목표 의식을 갖게 하고 미래를 위한 동기 부여가 되어있다. 그러나 임상 내 여러 상황을 통제할 적합한 판단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를 속행 하는 것은 부족해 경계 사례로 볼 수 있다.

2) 반대 사례(contrary case)

반대사례는 개념의 속성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규명된 속성과 반대되는 사례이다. 이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의 이해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반대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에 필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규명하고자 하는 개념의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다.

2019년 5월에 C 종합병원에 입사한 C씨는 임상 경력 4년이 넘어가는 5년차 간호사이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매번 실수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윗년차 선생님들은 바쁠땐 중요한거, 급한거 먼저 해야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급한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선생님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 응급상황이 생기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손부터 떨려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윗년차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응급상황 생겼을 때 윗년차 선생님들께서 업무 지시를 해주니까 큰일 안생기고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뭔가 제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안들어요. 간호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 사례는 임상 내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역경, 그로부터 수반되는 부정적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없으며, 간호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으며, 임상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통제할 적합한 판단력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간호 업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한 도전적인 목표 의식이 없으며 미래를 위한 동기를 부여도 보이지 않는 반대 사례이다.

3) 관련 사례(related case)

관련 사례는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과 관련 있는 중요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로,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결정적 속성을 포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분석하는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간호사 D는 2018년 C 종합병원에 입사한 임상 경력 만 5년의 간호사로 신규간호사 E의 프리셉터이다. 앞으로 한 달간 신규 간호사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호사 D는 신규간호사 E에게 앞으로 임상에 있는 동안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 할텐데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신규간호사 E는 힘들게 간호사 면허증 까지 취득했고, 어떤 일을 하든 힘든건 마찬가지니까 자신은 무조건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자부했다. 또한 본인은 임기응변에 능숙하기에 임상에서 필요한 발 빠른 대처에는 자신 있다고 하였다. (자신감)

또한 간호사 D는 신규간호사 E에게 처음 겪어보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길 텐데 잘 배울 수 있겠는지에 대해 질문 하였다. 신규간호사 E는 본인은 새로운 것을 도전했을 때 포기한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었으며 미래를 위해서라면 배움이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자존감)

위 사례의 간호사 D는 신규간호사 E의 자신감 및 자존감을 보았다. 자신감이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거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혹은 경기를 잘 할 수 있다는 등에 대한 자신의 느낌’으로 정의하고,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한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자기 효능감에 있어 유사한 개념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한 병원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은 간호사로 하여금 스스로 임상 내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역경, 그로부터 수반되는 부정적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갖는 것으로 결정적 속성에 대

한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3.6. 선행요인과 결과

1) 선행요인(Antecedents)

Walker & Avant의 개념분석이론에서 선행요인은 개념발생 이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의 주요 선행요인은 사회적지지, 교육수준, 전문성, 자기주도성, 경험 수준으로 나타났다.

1. 동료 간호사, 상급자, 가족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는 병원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육 수준이 병원간호사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간호사들은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자기효능감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병원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발전에 관련 있을 수 있으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병원간호사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효능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
5. 다양한 임상 경험이 있는 병원간호사들은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결과(Consequences)

Walker & Avant의 이론에 따르면 결과는 개념의 발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들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병원간호사들은 업무 수행에서 좋은 업무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업무에 대한 자기동기부여를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병원간호사들은 본인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추구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7. 경험적 증거

Walker & Avant의 개념분석이론에서 경험적 증거는 개념의 속성이 실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개념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도록 사실에 맞게 연결함으로써 그 뜻을 명확하게 해주

는 것을 말한다. 정의된 특성이나 속성을 측정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개념 자체가 아니라 정의된 속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즉, 병원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전 연구들은 병원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업무 수행, 환자 관리 등 간호 역할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확인하였다. 간호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기효능감과 업무 성과, 환자 만족도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실제 임상 경험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의 속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이전 성공 경험: 병원 간호사가 이전에 성공적으로 해결한 업무 상황이나 도전에 대한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았을 때, 자기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

(2) 동료와의 협력 경험: 병원 간호사가 동료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팀워크와 협업을 통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

(3) 긍정적인 피드백 경험: 병원 간호사가 환자, 동료, 상급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과 업무 수행에 대한 인정을 받았을 때,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

(4) 실패 경험: 실패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적 증거이다. 실패를 통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자기능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교육 및 교육훈련 경험: 교육과정이나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업무 수

행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는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4. 논의

간호학에서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은 직무 스트레스 대처, 직무만족과 환자 안전 관리 등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적용되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석이 미비하며 자신감, 자존감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라는 불완전한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Walker와 Avant의 단계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념적 속성은 1. 간호사로 하여금 스스로 임상 내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역경, 그로부터 수반되는 부정적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하는 것, 2. 간호사 자신에게 간호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3. 임상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통제할 적합한 판단력이 있다고 믿게 하여 업무를 속행 할 수 있게 하는 것, 4. 간호 업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도전적인 목표 의식을 갖게 하고 미래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 5. 간호사 개인에서 환자나 병원 조직까지 다방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의 선행 요인으로는 1. 동료 간호사, 상급자, 가족 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 2. 교육 수준 3.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보유 4.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발전 5. 다양한 임상경험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선행요인들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은 병원 간호사들은 업무 수행에서 좋은 업무성과를 보이며, 업무에 대한 자기 동기부여를 강화시킬 수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추구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개념분석으로 다른 유사 개념들과는 다른 간호학적 의미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병원 간호사에게 자기 효능감 증진이 왜 필요한지, 어떤 환경에서 증진되며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누구에게, 혹은 어떤 방면에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 병원간호사가 속해있는 병원 조직 차원에서, 병원간호사 개인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 고찰을 통해 병원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개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임상 상황에서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을 때 실제 실행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확인한 선행요인과 결과, 경험적 증거 부분을 토대로 교육기관에서 간호학을 배우는 시기와 신규 간호사 교육 시기에는 교육, 교육훈련을 충분히 경험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발전을 통해 성공 경험을 이끌어 내도록 하며 병원에 입사하고 나서는 체계적인 직무 교육 시스템과 프리셉터-프리셉티 교육 제도 활용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도록 하며 동료 간호사와 상급자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협력, 피드백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적절한 실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간호사가 자기 효능감 개념이 간호사 개인의 발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성과와 조직 몰입을 이끌어내 병원이라는 조직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 Hall
- [2] K. H. Hong & S. H. Cho. (2017). Comparison of nursing workforce supply and employment in south Korea and other OECD countri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4(2), 55-63. DOI : 10.16952/pns.2017.14.2.55
- [3] K. A. Kang & S. H. Park. (2018).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tress coping on the resilienc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549-558. DOI : 10.5762/KAIS.2018.19.6.549
- [4] M. Y. Kim & H. K. Lee. (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self-efficacy,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6(3), 726-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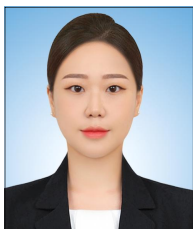
- [5] G. S. Kang & J. H. Kim. (2014). Self-efficacy and collective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3(3), 123-133.
DOI: 10.5807/kjohn.2014.23.3.123
- [6] K. Y. Kwon & P. J. Oh. (2019). Effects of nursing workplace spirituality and self-efficacy on th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5(2), 106-114.
DOI: 10.11111/jkana.2019.25.2.106
- [7] Y. K. Yang. (2011). A study on burnout, emotional labor, and self-efficacy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4), 423-431.
- [8] J. H. Kim & E. O. Park. (2012). The effect of job-stress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of clinic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2), 134-144.
DOI: 10.5807/kjohn.2012.21.2.134
- [9] G. Shahrour & L. A. Dardas, (2020). Acute stress disorder, coping self-efficacy and subsequent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nurses amid COVID-19.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8(7), 1636-1695.
- [10] Y. Liu, & Y. Aunguroch, (2019). Work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burnout among Chinese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7(7), 1445-1453.

김수진(Kim-Su Jin) [학생회원]



- 2014년 3월~ 현재 : 강남차병원 간호사
- 2023년 3월~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중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 E-mail : sujin2188@chamc.co.kr

윤소연(Yun So Yeon) [학생회원]



- 현재 : 분당차병원 간호사
- 2014년 3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중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 E-mail : a230208@chamc.co.kr

이보람(Lee Bo Ram) [학생회원]



- 2011년 8월 : 분당차병원 간호사
- 2023년 2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중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 E-mail : pisces8936@chamc.co.kr

홍진하(Hong Jin Ha) [학생회원]



- 현재 : 강남차병원 간호사
- 2019년 6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중
- 관심분야 : 아동간호학
- E-mail : wlskg2398@chamc.co.kr

황도연(Hwang Do Hyeon) [학생회원]



- 현재 : 분당차병원 간호사
- 2018년 11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중
- 관심분야 : 아동간호학
- E-mail : a180432@chamc.co.kr

유슬기(Yoo Seul Gi) [학생회원]



- 현재 : 일산차병원 간호사
- 2017년 6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중
- 관심분야 : 아동간호학
- E-mail : tmf15930@chamc.co.kr

신나연(Shin-Na Yeon) [정회원]



- 2003년 8월 ~ 현재 : 분당차병원 간호사
- 2011년 이화여자대학교 성인간호학 석사 졸업
- 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성인간호학 박사 졸업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간호교육
- E-mail : nabong78@chamc.co.kr